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첫발… 갈등은 여전

5일 제주도청서 제1차 회의… 김학린 위원장 선출
국토부 "도가 요청한 도민 의견수렴 방식 적극 수용"
찬성측 "공익감사 청구"… 반대측 "공정 절차" 촉구

제주 제2공항의 의견 수렴 방식을 논의해 제주도에 권고할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5일 제주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위성곤 도지사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관계자, 협의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학린 위원(의료혁신위원회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을 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협의회 운영 방향과 향후 논의과제 등을 협의했다.

갈등조정협의회는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기구로, 2027년 1월까지 도민 알권리 보장 및 의견수렴 방식·절차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2월 중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 제주도는 협의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수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어떠한 도민 의견수렴 방식이든 제주도가 요청하면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 방안과 합리적인 도민 의견수렴 방식·절차 등을 논의할 계획으로 회의 결과를 제주도 누리집(자료실)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제2공항 찬성 단체인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갈등조정협의회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예고했다.

감사청구는 제주도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주요 내용은 ▷제주 제2공항 관련 행정의 편향성·중립의무 위반 여부 ▷사회협약위원회 구성의 편향성·자문 권고 미검토 ▷갈등조정협의회 준비소위 찬성 측 의견 묵살 등이다.

범도민추진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협의회 해체와 제2공항 추진을 요구했다.

이러한 반발을 의식하듯 위성곤 도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찬성 측 대책위원회에서는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지만 찬성하는 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이재성 위원)이 함께 포함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며 "도지사의 의사결정을 위해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법률과는 상관이 없다. 도지사가 행정 행위를 하면서 도민의 의견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지금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반대단체인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참여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놓고 협의회를 폄훼하면서 도민 결정에 의한 갈등해결을 방해하려는 일부 찬성단체와 정치권의 행태는 정당성이 없다"며 "제주도정과 협의회는 도민이 동의하고 수용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소범·양유리기자

오늘의 날씨와 생활

11월 6일 금요일 음 9월 27일 (4물)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 주	10%
10%	성 산	10%
20%	고 산	10%
10%	서귀포	1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10/16℃
모레	흐림	11/19℃

맑음

제주는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4~15℃, 낮 최고기온은 16~19℃로 예상된다. 구름많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질 예정이며 늦은 새벽 곳에 따라 빗방울이 있으니 유의해야겠다.

	해뜸 06:57 해짐 17:38	달뜸 03:48 달짐 15:41
물때	만조 08:57 20:53	간조 02:46 15:07

자외선지수 보통 / 산불위험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전통시장 갑시다!!

전통시장명	장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서는 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보호견과 산책하는 '고치 걷개, 고치 살개!'

21일 오전 제2동물보호센터

제주동물권행동 나우와 봉그젠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제주 제2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시민 공감 산책 '고치 걷개, 고치 살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유기동물 없는 제주 프로젝트'의 첫 프로그램으로, 입양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시민 10명이 보호견과 산책하고 교감하는 소규모 참여 프로그램이다. 도담도그스쿨 허재혁 소장이 안전한 산책과 올바른 교감 방법을 지도한다.

입양 상담을 통해 입양이 확정된 보호견에게는 네추럴코어의 사료·간식·산책용품 등 입양 키트가 제공된다. 입양 가족에게도 ㈜비타글로리의 식물성 스팸·찜콩 등이 전달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 링크(forms.gle/bomGyieGv8YStQj78)를 통해 할 수 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지난해 5월 순직한 중학교 교사의 유가족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고, 압박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김지은기자

중학교 교사 유가족 "과도한 노무비 조정해야"

5일 도내 단체와 공동 기자회견

지난해 5월,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다 순직한 제주 중학교 교사의 유가족이 한 노무법인과의 불공정한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교사의 유가족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등 도내 7개 단체는 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법인은 유가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고 재산 가압류 압박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유가족은 고인의 순직 인정 과정에서 노무사 위임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노무법인으로부터 계약 약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안내를 받지 못했다. 노무 수임료 역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고, 독소 조항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유가족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성공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이 유가족의 선택권을 사실상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에 유가족은 노무비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노무법인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유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을 가압류하겠다는 문서를 보내왔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8회 물영아리 습지문화제 '숨 그리고 쉼'

7일 남원읍 물영아리오름 일원… 목장길 탐방 첫선

서귀포시 남원읍 물영아리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습지문화제가 열린다.

서귀포시와 서귀포시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는 오는 7일 물영아리오름 일원에서 '제8회 물영아리 습지문화제 '숨 그리고 쉼'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평소 개방되지 않는 목장길을 한시적으로 열어 제주의 목축문화와 물영아리의 생태 경관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탐방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목장길 따라 물영아리 속으로'는 지역 주민 해설사와 미개방 목장길을 동행하며 제주의 자연과 목축문화를 살펴보는 특별 탐방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목장길 생태탐방, 물영아리 스탬프투어, 숲속 작은 음악회, 숲속 꼬마도서관, 생태·문화 체험부스 등이다.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알아보는 곤충, 생태그림, 제주 전통문화, 지역 특산물 시식·판매 등 다양한 체험부스도 운영된다. 탐방로에 숨겨진 캡슐을 찾아 기념품을 받는 참여형 이벤트도 있다.

백금탁기자

제주교육박물관 30일까지 수험생 응원 이벤트

제주교육박물관이 제주 유배인 7명을 조명하는 기획전과 연계해 수험생 응원 퀴즈 이벤트를 연다.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참여 대상은 도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과 그 가족이다. 제주교육박물관 전시실에 있는 QR코드로 접속해 객관식·주관식 퀴즈를 푸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장원급제 1명을 포함해 모두 27명에겐 소정의 상품권이 주어진다. 제주교육박물관은 "이번 이벤트가 수험생에게 작은 응원과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지은기자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안내



1 2009년생(만 18세)부터 신청 가능
2 첫 국민연금보험료는 국가가 지원
3 본인 또는 부모님이 신청





신청 대상
· 2027년 만 18세가 되는 청년부터 신청 (2009년생부터 신청 가능)
* 27세 생일 전까지 신청해야 지원가능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부모님이 신청 홈페이지(모바일), 전화, 방문, 우편, 팩스 등
· 18세 생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지원 금액 · 신청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 1개월분 * 지원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보건복지부 NPS 국민연금공단 National Pension Service